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지금 국가는 2월 2일 11개 도부현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 선언”을 오사카부를 포함한 10개도부현에 대해 3월 7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정해 이것을 받아 오사카부로는 부민에 대해 “불요불급의 외출 및 이동 자숙의 철저와 “음식점 등의 영업 시간 단축”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월 3일에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 소관 시설의 이용이나 시 주최 이벤트의 중지 또는 연기의 조치를 긴급사태 선언의 기간과 같은 3월 7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단 이 조치는 긴급사태 선언이 예정보다 빨리 해제된 경우 그것에 맞추어 종료될 예정입니다.

오사카 부내의 신규 감염자수는 1월중순 이후 감소경향에 있습니다. 우선 매 한주일의 신규 감염자수를 보면 오사카부는 1월 4일~10일의 3680명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의 25일~31일은 2300명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1명의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몇명 감염시킬까”를 나타내는 “실행 재생산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높을 만큼 감염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1미만이 계속되면 감염이 수습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사카부로는 1월 10일에 1.64라는 높은 숫자였습니다만 17일 이후는 1을 밑돌아 2월 1일은 0.7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1월에 여러시설의 집단 감염 이른바 클러스터가 발생한 적도 있어 감소경향이 약간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일부터의 1주일에 과거 최대의 178명을 기록했습니다만 25일부터의 1주일은 115명과 감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의 급격한 확대에 들어가고 있어 오사카부는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하나인 “7일간 이동 평균의 신규 양성자수가 7일간 연속 300명 이하”에 대해서도 2월 2일·3일과 2일간 연속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시민을 비롯한 여러분이 외출이나 이동 자숙의 요청에 협력해 주신 성과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월에 고령자 시설에서 6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의 이용자를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도 다수 감염했습니다. 한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역학 조사나 건강 관찰이 필요한 요양자가 급증해 보건소 업무는 궁핍을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또 오사카부의 중증 병상 사용율은 현재도 70%를 넘어 시민의 여러분이 필요할때 원활하게 의료를 받게 되지않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시립 히라카타 병원에서는 오사카부의 의뢰를 받아 작년 4월부터 경증 또는 중등 증 환자분이 입원하시고 있습니다. 당초 20상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감염의 확대에 따라 현재는 42상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입원 환자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월 이후는 모든 병실이 만실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이상의 감염확대를 억누르고 의료의 궁핍을 막아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당분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백신을 시민의 여러분께 안심하고 접종해 주실 수 있도록 의사회나 의료 기관과 제휴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 집단 감염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이나 자택 요양을 피할 수 없게 되어있는 분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홍보 히라카타야시 홈페이지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힘을 합해 함께 극복합시다!

레이와 3년 2월 5일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다카시

枚方市長

伏見隆